

장흥토요시장 '친절·청결'로 거듭난다

개장 14주년 기념 큰잔치 축하공연·경품추첨 등 다양한 고객감사 이벤트 연평균 매출 1000억원 넘는 최고 전통시장 재도약 다짐



지난 6일 장흥 토요시장에서 토요시장 개장 14주년을 기념하는 고객 감사 큰잔치가 열렸다. (장흥군 제공)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친절과 청결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지난 6일 개장 14주년을 맞아 고객감사 큰 잔치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기념행사는 식전 사물놀이 공연, 기념식,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채워졌다. 기념식에서는 토요시장 발전에 공헌한 토요시장 상인 김춘례씨와 이운씨가 군수 표창을, 김수라씨와 이병수 씨가 상인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그룹 백두산의 리더로 유명한 가수 유현상 씨를 비롯한 3명의 초청가수가 무대에 올라 랠렸다. 부대행사로에는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향토음식 무료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TV와 자전거, 장흥한우세트 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경품추첨도 이어졌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시장'으로 개장했다. 2015년 한국관광의 별, 201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흥한우삼합을 비롯한 먹거리와 친환경 지역특산품을 앞세워, 연평균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토요시장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이라며, "군에서 시장 시설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상인들이 친절과 청결을 책임진다면 토요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내일 개관

영암군은 대불국가산단 내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휴스데이·사진)를 10일 개관한다. 근로자 복지센터는 내국인 66실, 외국인 72실 규모로 보증금 12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이다. 입주조건 및 우선순위는 대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협력기업 근로자, 대불산단 내 기업·유관기관·대학 재직자 및 학생, 대불산단 외 기

업 및 근로자 순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대불국가산단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정착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물놀이장 13일 개장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3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기찬랜드 물놀이장은 국립공원 월출산의 맥반석에 흐르는 계곡물을 이용한 천연 자연형 풀장이다. 지난해 14만명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만큼 영암군은 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야외·실내 물놀이장 정비 등을 위해 5억5000만원을 들였다. 임시주차장 조성, 데크 보수·도색, 탈의실 설치, 노후간판 정비, CCTV 증설 등 물놀이장 시설정비와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특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일 물놀이장 개장 전후 환경정비를 위해 고압 세척기로 수조를 청소하며 수시로 오물을 수거하기로 했다. 물놀이장 수심도 40~110cm를 유지해 어린이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안전요원 70명과 보건소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영암경찰서·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는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에서 음악회 공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13일 열리는 개장식에서 초청 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군-K-water '월암마을 도랑살리기' 업무협약

장흥군과 K-water가 월암마을 도랑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흥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K-water서남권지사, 물포럼코리아, 천관산동백새우보존회, 월암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월암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협약 기관들은 깨끗한 물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장흥댐의 상류인 월암마을 도랑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군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K-water서남권지사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옛도랑 모습으로 복원하는 등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오는 11월까지 퇴적물을 제거하고 수생식물 식재, 정화활동, 주민환경 교육 등 다양한 수생태계복원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공무원 노조 총파업 장기화 '빈축'

전체 278명 중 30~40여 명 파업 참여... 민원처리 지연 등 우려

강진군 공무원(무기계약직)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이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도 부족할판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는 '관광 강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전환시 공무원 9급 기본급 체계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공무원 278명 가운데 30~40여 명이 파업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1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도내 2위권 수준의 임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무원 1명당 평균 2019년 기준으로 연 2855만6360원, 한 달 평균 237만969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1만1380원에 해당되며 금액으로만 따지면 최저 임금(2019년 시간당 835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며 "공무원노조가 기본급 111만7930원 만을 강조하며 이를 파업의 배경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공무원과 공무원직은 임용 방식은 물론 업무의 강도와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체계와 금액이 다른 것이 아니며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수년간 어렵게 공부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것을 보니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진군은 이번 총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군,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 준비 박차

강진군은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비롯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조례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7월 중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이후 조직위원회를 발족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국내 대학역도연맹 관계자 10명이 강진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추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오는 8월에는 대회를 유치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 및 기술위원 등 현지 실사단이 3일간의 일정으로 강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 시설과 숙박, 교통, 주변 환경 등을 소개하고 FISU 관계자와 대회 엠블럼을 선정한다. 2020년 강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st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